자재 수요 전반적 약보합세, 가격‘ 줄다리기 ’이어질 듯

- 민간건축 경기‘ 실종 ’이 주요인, 하반기에도호재 없어 -

지난5월까지시멘트를비롯한레미콘, 철근, 고강도콘크리트파일등기초건설자재의 수요는 소폭 증가했다.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만이 10% 이상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냈을뿐나머지건자재의수요는증가율이 5%를넘지못할정도로저조했다.

이는 연초 관련 업계가 예측했던 것과는 거리가있는것이다. 관련업계는올해의건자재 수요는 4월에 바닥을 찍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상승기로접어들며견조한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8 · 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며건설업체들이미루었던사업을재개하는 등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요 당초 기대에 못미쳐

그러나 상반기 동안의 건자재 수요는 관련업계의기대와는달리실망스러운패턴을 보였다. 5월부터수요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증가율이떨어지며시장분위기를어둡게 만들었다. 1월에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제외한 전 품목이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어 2, 3월 두달동안은시멘트, 레미콘, 고강도콘크리트파일등이10% 이상큰폭의증가세를보이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러나 4월부터자재시장에 이상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6월 현재까지철근과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제외한 기초 자재의 수요가마이너스를보이고있다.

하반기 기초 자재 수요 전망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시멘트	23만톤	240만톤	4,710만톤
레미콘	6,000만㎥	6,440만㎥	1억 2,440만㎥
철근	530만톤	506만톤	990만톤

결국지난 2월과3월의 대폭적인수요 증가는 실물 경기의 회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절적인특성에따른일시적인현상에불과했던것이다. 즉지난해말의한파와폭설로 인해 출하가 미뤄졌던 물량들이 2월과 3월로집중되면서일시적으로수요증가를불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월 물량이 소진되자마자 수요는 부진에 빠지고 말았다. 지난해의건자재수요가외환위기이후최저수준이라는점을감안하면상반기의수요부진이 얼마나심각한수준인지를알수있다.

민간 건축 경기 침체가 주요인

건설 자재의 수요가 부진한 것이 건설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토목보다는 레미콘, 시멘트, 철근 등의수요유발효과가큰아파트, 주상복합 등민간건축경기가살아나지못한것이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8 · 31 부동산대책을발표한데이어 올들어서도3 · 30 부동산대책을발표하는 등시장을위축시키는정책을지속적으로내놓은 것도 건자재 수요 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과 착공을 미루거나 사업을 취소하는 등 재빨리 관망자세로돌아섰기때문이다.

시멘트 · 레미콘 동반 부진

상반기 동안의 품목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시멘트는 지난 5월 말까지 1,918만 7,000톤이생산됐는데이는작년같은기간에 비해 2.0% 37만 4,000톤이 증가한 것이다. 내수는 1,864만 1,000톤으로 작년보다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수요

증가폭은 6월 들어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과수입은모두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작년보다 5.0% 늘어난12억 1,000만톤이 들어오며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수출은4.2%가 늘어난 17억 1,000만톤이 실려 나갔지만 부족한 내수를 채우기에는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시멘트시장의이와같은흐름은하반기에도이어질것으로 보인다. 특히쌍용양회등연안업체들은내수부진을만회하기 위해 수출에더욱강한드라이브를걸것으로보인다.

레미콘 수요 역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시멘트수요의 85% 정도를레미콘업계가 소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레미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레미콘출하는 2,005년 1억 4,779만 7,000㎥를 정점으로 2006년에는 1억 4,221만 3,000㎥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1.6%나 감소한 1억 2,567만 5,000㎥가 나가는데그치며최악의해를보냈다. 올들어서는 감소폭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레미콘업계의 기대를충족시켜주기에는역부족이다. 이는 전국 레미콘 수요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출하 동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올들어지난6월 22일현재까지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지역에서출하된레미콘은모두 2,237만 1,000㎥로 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1.5% 증가하는데그쳤다. 민수용이 2,029만 7,000㎥로 3.9% 증가한 반면 관수용은 207만 4,000㎥로 무려 17.1%나 감소했다. 공공부문의수요부진이얼마나 심각한지를여실히보여주는수치다.

고강도 파일은 10% 이상 증가 예상

기초건설자재수요의선행지표라할수 있는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은 시멘트나 레미콘과는 전혀 다른 수요 패턴을 보여주었다. 일면시멘트및레미콘의수요와는역행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은 지난 5월까지 182만 5,300톤이 출하됐다. 이는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무려 23.4%나증가한것이다. 그러나지난4월만 해도17.8%에달했던고강도콘크리트파일의출하증가율은5월들어 11.0%로떨어지며증가율둔화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시멘트나 레미콘과는 달리 고강도 콘크리트의 수요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천 송도를 비롯해 화성 동탄, 양산 물금, 잠실 등 연약 지반에 건설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현장에 납품하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하는 파일이 무게가많이나가는특수형태의제품이많은데다 타설 깊이가 깊어 이중삼중으로 이어서타설하는경우가많은것도수요 증가의한요인으로작용했다.

철근은 상반기 동안 수입을 포함해 536만여톤이출하됐다. 이는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약 8.3%가증가한것이다. 올 들어 철근 수요가 증가한 것은 잠실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작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었던 물량들이대규모상반기로이월되면서수요를유발했기 때문이다. 특히가격이상승세를 보이자 일부 수요자들이 비축에 들어가는등상당량의가수요가발생한것도 원인이다.

하반기 시장 전망 역시 어두워

하반기건설자재수요전망은어둡다. 시멘트, 레미콘, 철근, 고강도콘크리트 파일 등 전 업계가 어둡게 보고 있다. 실물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다 각종 선행지수들이좋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기 때문이다.

건설 수주의 경우 지난 4월까지 2개월째 감소세를보였고건축허가면적도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건설 수주는 3월에 34.5% 감소한데이어4월에는18.8% 줄었는데특히건축 부문이 9.8%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월 건축 허가 면적은 924만 7,000㎡로작년보다8.2%, 건축착공면적은762만 ㎡로 감소 폭이 20.7%에 달했다. 이 같은 선행지수들이실물경기에반영되는하반기에도수요증가를기대할수없을정도로건축경기가위축돼있는것이다. 또건설업체들이아파트분양을줄이고있어서수요증가를불러올호재는사실상찾기힘들다.

따라서, 이와같은여러가지선행지수와 시장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시멘트, 레미콘, 철근,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등 기초자재의하반기수요는전체적으로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시멘트 수요는작년수준과비슷한 4,700만여톤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멘트업계 일부에서는 심할경우4,500만톤대로떨어질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내놓고있다. 레미콘 수요는 1억 2,400만 1억 3,000만㎥로 지난해 대비 3%의선에서늘어나거나감소할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은 15% 정도 증가한 415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근은하반기에약506만여톤이출하되며 연간전체적으로는990만톤에그칠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가격을 둘러싸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철근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데이어 시멘트와레미콘이대기상태에있다. 시멘트는쌍용, 성신등일부업체가이미인상을통보한상태이고나머지업체들도 추이를 관망하는 중이다. 레미콘도 업체들이건설업체들과접촉을벌이며변화를시도하고있다. 건설경기가위축되고최저가낙찰제가확대시행되는시점에서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어느 선에서 접점을찾을지지켜볼일이다.

전병수
일간건설팀장